

통역사의 기억력 측정

정혜연
(한국외대)

1. 들어가며

통역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처음에는 기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통 노트테이킹을 시키지 않는다. 듣기에 집중하고 연사의 말을 분석하는 법을 익혀, 이를 적지 않고도 잘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경험이 많은 전문 통역사들의 경우에도 노트테이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 통역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통역사의 기억력이 비통역사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가정은 노트테이킹이 필요한 순차통역뿐 아니라 동시통역에도 가능한데, 동시통역에서는 통역이 연사의 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기억할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출발어와 도착어의 통사 구조가 다를 때에는 문장 이해에 필요한 단어가 나올 때까지 흘러가는 정보를 기억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¹⁾

1) 이미경(2011)은 실제 동시통역에서 통역사의 수행기억(working memory) 폭에 따라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통역사의 기억력이 우수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역사의 기억력 중에서도 특히 수행기억(working memory)이 그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들 실험 결과는 뚜렷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적이었다. 파딜라(Padilla 1995), 친코타 & 언더우드(Chincotta & Underwood 1998), 류 외(Liu et.al. 2004), 쿵케 외(Köpke et.al. 2006)에서는 통역사의 기억력이 다소 우수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르뎡 & 뵈그트린(Nordet & Voegtlin 1998) 등에서는 전문통역사의 기억력이 오히려 통제그룹인 학생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적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들 연구가 ‘통역사 기억’의 성격 규명을 소홀히 했다는 점, 따라서 이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측정방식을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통역사 기억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방법상의 모순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여, 통역사의 기억이 실제 비통역사에 비해 우수하나, 그 우수성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2. 음운적 기억 vs 메시지 기억

기억력 측정에 앞서 통역사 기억력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기억은 얼마나 지속되느냐(단기, 장기 기억), 기억의 내용이 무엇이나(서술적, 절차적 기억)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통역사 기억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은 기억의 ‘형태’가 무엇이나이다. 다시 말해 통역사가 특정한 대상을 형태(소리나 글씨)로 기억하느냐, 혹은 그 내용(의미)으로 기억하느냐의 차이이다. 이러한 기억의 분류는 이미 동시통역사의 수행기억을 연구했던 미즈노(Mizuno 2005)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이를 각각 ‘음운적 기억(phonological memory)’, ‘의미적 기억(semantic memory)’라 명명했다. 유사한 분류는 정혜연(2011)에서도 찾아볼

텍스트의 정보처리와 표현방식 면에 개인차가 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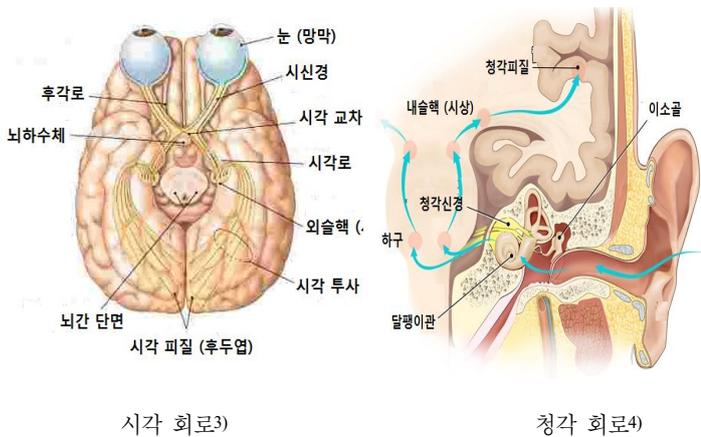
수 있다. 통역능력 습득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통역사 기억의 발달을 언급하며, 통역사는 단순한 ‘기계적 암기력’에서 ‘컨셉트 기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능력을 발달시켜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미적 기억이니 컨셉트 기억이라는 용어는 언어학, 심리학, 신경학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니만큼²⁾ 본고에서는 이 용어 대신, 통역사의 기억력의 특징이 보다 잘 강조된 ‘메시지 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메시지 기억’이란 통역사가 전달해야 할 의미란 뜻의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2002:59)의 용어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며, 정확히는 통역사가 메시지를 형성하여 저장하는 행위, 혹은 그 저장한 결과물을 말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통역사가 연사의 의도에 따라 출발텍스트를 분석한 것으로, 언어적 형태와 비언어적 형태가 뒤섞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정혜연 & 고효정 2012:187).

기억을 이처럼 ‘음운적 기억’과 ‘메시지 기억’으로 분류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두 기억에 관여하는 두뇌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음운적 기억’은 신경학에서 말하는 감각기억(sensory memory)과 유사한 개념으로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청각정보가 각각 두뇌의 시각회로(망막-시신경-시각교차로-시상 외슬핵-시각피질)와 청각회로(고막-이소골-달팽이관-청각신경-시상 내슬핵-청각피질)를 돌고 있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감각기억은 보고 들은 자극의 형태가 보존되는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자극이 사라지면 대체로 수 분 이상을 지속시키기 어렵다. 반면, ‘메시지 기억’은 형태가 추상화되어 내용으로 저장되며, 망각작용에 영향을 덜 받는다(툼슨-셸 & 칸 & 올리버 2006:164). 메시지 기억도 처음에는 시청각 자극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시청각 자극이 그 형태 그대로 머무는 대신, 통역사 두뇌의 다른 기억과 상호작용하며 의미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것이 일종의 메시지이다. 이러한 기억

2) 신경학에서 ‘의미적 기억(semantic memory)’은 세계에 대한 지식(world knowledge)란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신경학에서는 이 개념이 텍스트뿐 아니라 특정 어휘(예를 들어 ‘사랑’, ‘책’)에 대한 단편적 지식도 포함하는 바, 기억의 형태보다는 기억의 내용에 더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툼슨-셸 & 칸 & 올리버 Tompson-Schill & Kan & Oliver 2006:149). 또 ‘컨셉트’라는 용어 역시 심리학, 언어학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므로, 본고에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용어를 통역에 맞게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논지 전개에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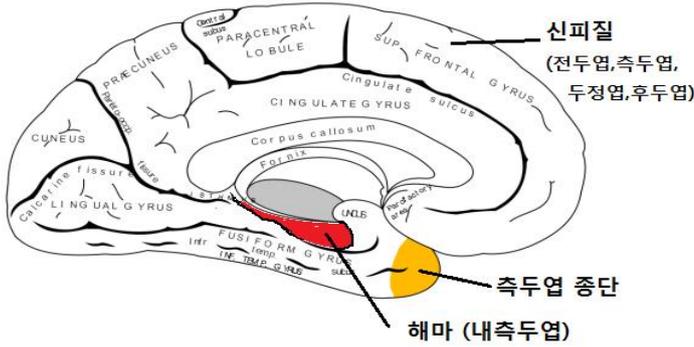
형성과정은 내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구조인 해마(hippocampu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측두엽 종단(temporal pole) 부위는 정보를 통합하여 추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형성된 메시지는 처음 감각정보 처리가 이루어진 신피질 부위에 저장된다. 텍스트의 이해도 글자라는 시청각 자극을 받아 추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측두엽 종단이 메시지 형성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념의 추상화를 두고 fMRI 실험을 실시한 나페니 & 프라이스(Noppeney & Price(2004)도 이 부위가 문장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톰슨-셸 & 칸 & 올리버 2006:164). 이처럼 음운적 기억과 메시지 기억은 두뇌의 형성, 저장 부위가 각각 달라, 그 형태, 지속시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 음운적 기억의 형성과 저장



3) 출처: <http://evillusion.files.wordpress.com/2008/07/opticnerve.jpg> 필자 번역.
 4) 출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4/Hearing_mechanics_cropped.jpg 필자 번역.

〈그림 2〉 메시지 기억의 형성과 저장⁵⁾



이 중 ‘음운적 기억’은 시각, 청각기관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억으로 훈련에 의해 강화된다고 보다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단순 암기력이 훈련에 의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시청각 기관의 기능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에 여러 가지 의미 관련 전략 (예: 특정 사물과 연상시켜 외우기, 연관 있는 것끼리 묶어 외우기), 즉, 메시지 기억에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메시지 기억’은 일종의 정보처리 능력으로 유전적 영향이 적고(엘리어트 Elliot 2006:554, 노이바우어 Neubauer et.al. 2000:283) 훈련에 의해 뚜렷하게 강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처리 능력은 통역 습득 및 경력의 결과로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바호 외(Bajo et.al. 2000)은 범주 구분 실험을 통해 통역사가 비통역사에 비해 개념의 의미 분류에 우수함을 증명하였고, 정혜연 & 고효정(2012)에서도 통역능력과 메시지 형성능력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또 류 외(2004)는 통역사가 비통역사에 비해 텍스트의 핵심 아이디어(critical sentence)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상을 놓고 볼 때 통역사 기억이 비통역사 보다 우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음운적 기억이 아닌 메시지 기억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5)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필자번역.

3. 메시지 기억의 측정

3.1 메시지 기억의 성격

이상에서 살펴 본 메시지 기억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메시지 기억의 성격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메시지 기억이 우수하다는 것은 메시지의 형성, 저장, 인출 능력, 나아가 저장 결과물인 기억 용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메시지의 ‘형성’은 보고 들은 정보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장기기억)과 조합해 구조화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정보의 구조화는 일종의 분석능력으로 분석이 깊이 이루어지면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 크레이크 & 록하트(Craik & Lockhardt 1972), 사이토 & 미야케(Saito & Miyake 2004)⁶⁾도 기억의 형성과 ‘저장’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두고 볼 때 통역교육 내내 텍스트 분석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통역사는 메시지 형성과 저장 능력이 모두 발달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겠다. 한편, 메시지 기억의 ‘인출’은 장기기억의 여러 기억 중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올바르게, 즉,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 통역사에게는 이러한 정보, 혹은 개념 인출능력이 발달되어 있음은 크리스토폴스(Christoffels 2006:335)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그림과 언어 실험을 통해 40대의 통역사가 20대의 통제집단 보다 일반 인지반응에는 뒤떨어지지만, 언어 인출에 있어서는 훨씬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메시지 기억을 측정할 때에는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를 측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즉, 빠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형성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억의 용량을 측정하는 동시에, 기억 사용의 효율성 역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통역사 기억이 우수한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텍스트의 논리구조를 잘 파악해 구조화하는 능력(기억의 형성), 둘째, 새

6) 크레이크 & 록하트(1972)는 텍스트 분석의 깊이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사후 기억력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람베르트(Lambert 1983)가 이를 통역실험에 적용한 바 있다. 사이토 & 미야케(2004)도 정보의 망각에는 시간보다도 정보처리 방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로이 보고 듣는 정보나 자신이 앞서 처리한 정보를 자극으로 후속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능력이 그것이다(기억의 인출). 이를 신경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통역사는 시청각 자극을 통해 두뇌 각 구조에 저장된 정보 간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⁷⁾, 관련 정보가 저장된 뉴런 간의 점화(신호전달) 능력 역시 발달되어 있다는 것⁸⁾이다.

3.2 메시지 기억의 측정방식

통역사 기억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 기억 측정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듣기폭(listening span) 실험(류 외 2004 등), 읽기폭(reading span) 실험(노르뎃 & 뷔그트린 1998 등), 숫자폭(digit span) 실험(파딜라 1995 등)과 같은 순차적 과제이고, 나머지는 말하며 동시에 단어 기억하기(free recall with articulatory suppression)와 같은 동시 과제이다(콕케 외 2006 등). 전자는 문장을 듣거나 읽으며 문장을 이해하는 동시에(사후에 문장의 의미도 묻는다) 마지막 단어를 기억하도록 하거나, 단어, 숫자 등을 들려주고 되도록 많이 기억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bla' 등 의미없는 말을 반복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들려준 단어를 되도록 많이 (순서와 무관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통역사의 수행기억이나 단기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앞서 밝혔듯이 실험 결과는 모순적이었다. 통역사의 기억이 뚜렷하게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 방식들은 전적으로 기억의 용량만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기억을 얼마나 잘 형

7) 통역사의 메시지 기억이 좋다는 것은 어차피 통역 후 사라질 정보의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주지했듯이 정보의 연결 기능(기억 형성)과 정보 간의 점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기억 인출)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메시지 기억의 정의와 통역사 기억의 성격 전반에 대해서는 정혜연(2014)를 참조하기 바란다.

8) 두뇌에 입력된 정보가 하나의 뇌세포(뉴런)에서 화학적, 전기적 신호에 의해 다음 뉴런에 전달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뉴런 간에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 신호에 의해 전달되는 뉴런 간의 정보 교환은 일종의 점화에 비유될 수 있겠다.

성하고 인출하느냐 라는 과정적 측면이 무시된 것이 그것이다. 둘째, 이 방식들은 대체로 통역사가 교육받고 직업상 많이 활용하는 메시지 기억이 아니라 음운적 기억을 측정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통역사는 교육 및 직업의 성격상, 의미에 의존하지 않는 기계적 암기에 있어서는 비통역사보다 특별히 우수할 이유가 없다. 통역사 기억 연구방법에 대해 비판을 가한 쾨케 & 시노렐리(Köpke & Signorelli 2011)도 듣기폭, 읽기폭 실험 자체에 직접적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단어를 반드시 들은 순서대로 기억해야 하는 실험보다는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기억 실험이 통역사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편이 단어를 원하는 대로 묶어 ‘의미’를 형성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상을 고려하여 통역사의 기억을 보다 다면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억의 용량을 측정하는 동시에, 기억 형성의 과정, 기억 인출의 속도와 정확성(이상 기억사용의 효율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4. 실험

4.1 실험설계 및 진행

본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어와 숫자를 섞은 4개의 리스트를 들려주고 순서와 무관하게 되도록 많이 기억하도록 한 후, 기억을 되살려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하였다(듣기폭 실험). 단어 및 숫자의 수는 수행기억 용량으로 알려진(밀러 Miller 1956) 7+2를 기준으로 하여 7-11개로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 두 개를 각각 들려주고 첫 단계와 마찬가지로 되도록 많이 기억하라 한 후, 이를 컴퓨터에 재생하도록 하였다. 특정 피험자에게 유리한 일이 없도록 실험에 쓰인 텍스트는 주제(환경, 사법)와 기능(연설문, 신문기사), 논리 진행에(문제-해결-결과, 시간 순서) 있어 서로 다른 유형을 선정했다. 이들 텍스트는 사전에 명제(proposition) 단위(대체로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절’ 형태)로 나누어, 길이를 18개의 명제로 통일하였다 (별첨 텍스트에 / 로 표시).

피험자의 전공어가 영어, 독일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다양하였으므로 모든 실험자료는 피험자의 공통 모국어인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실험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의 전 과정은 컴퓨터 활동 녹화 소프트웨어인 My Screen Recorder(MSR) 프로그램으로 녹화되었다. 녹화는 기억인출의 속도 및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후에 피험자의 연령, 성별, 통역습득연한 및 통역경력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1〉 실험진행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어 기억 실험 (4문항)	메시지 기억 실험 (2문항)	설문 (연령, 성별, 경력)

이 실험에는 대학생 29인(평균 연령 23.1세), 통역대학원 1학년생 14인(평균 연령 26.36세), 통역경력 5년-14년의 전문통역사 8인(평균 연령 36.75세)이 참여했는데 이는 통역습득연한 및 경력이 다른 세 집단의 기억을 측정함으로써 이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 실험결과를 집단 차이를 볼 수 있는 ANOVA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4.2 실험결과 및 분석

4.2.1. 기억의 용량

순수하게 기억용량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어와 메시지의 양을 단순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단어 실험의 경우, 옳게 기억된 단어의 개수를 세었고, 메시지 실험의 경우, 옳게 기억된 명제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단어 실험에서 피험자가 잘못 들었거나 컴퓨터 오타를 낸 것으로 보이는 오류(성냥 → 성량, 자다 → 자가)는 맞게 처리하였고, 긴 고유명사의 경우, 대략의 내용과 형태가 맞으면 만점 처리하였다(대한무역진흥공사 → 한국무역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회). 메시지 실험 결과 측정은 더욱 어려웠다. 실험 텍스트에서 한 명제 실현 형태인 절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고(모임을 가장 많이 갖는 장소가 음식점입니다 (2개의 절) → 음식점에서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1개의 절)), 한 절 중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내용만 잘못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던 절

의 내용이 일반화된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기억의 형태와 무관하게 담고 있는 의미가 잘 기억되었으면 만점 처리를 하였다. 후자의 경우, 즉, 명제의 일부만 잘못되거나, 일반화된 경우, 반점만을 부여하였다.

〈표 2〉 기억의 용량

	집단	평균 (단어: 개수 / 메시지: %)	표준편차
단어	전문가	23.38	2.88
	통대생	25.00	3.35
	학부생	24.07	2.42
	평균	24.22	2.77
메시지 (전체)	전문가	68.57	9.99
	통대생	60.61	9.49
	학부생	54.86	12.72
	평균	58.67	12.35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 ‘단어’ 실험의 경우, 통대생>학부생>전문가 순으로 기억의 양이 많았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는 미미했다. 실험군의 나이를 고려해볼 때 20대 초반인 학부생이나 20대 중반인 통대생이 30대 중반, 혹은 40대인 전문가보다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본 실험만을 두고 볼 때 기계적 암기력에 있어 실제 전문가가 통역습득연한이나 경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한편, ‘메시지’ 실험에서는 전문가>통대생>학부생 순서로 기억양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의 뚜렷한 우위가 관찰되었다.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집단도 본고의 예상대로 통대1년생(12월 실험이었으므로 대학원 통역학습 1년차)으로 여기에서도 학부생과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했다. 학부생의 경우, 불성실하게 실험에 임한 피험자 1인을 제외시키고, 결과를 산출했음에도 전문가와 통대생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⁹⁾ 결론적으로 본고의 예상대로 음운적

9) 기억능력 측정에 변수로 작용할 언어능력은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기억능력에는 어느 정도 언어능력이 포함되기 때문이었고(언어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기억형성에 도움이 된다), 둘째, 실험이 모든 피험자의 공통 모국어인

기억이 아닌 메시지 기억에 있어서만 전문가의 우위가 관찰된 것이다.

<표 3> 기억의 용량에서의 집단차 (ANOVA)

	평균 (표준편차)	거짓	유의확률(p)
단어	24.22 (2.77)	.96	.389
메시지 (전체)	58.67 (12.35)	4.69	.014*

* p<.05 ** p<.01 *** p<.001

이번에는 세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메시지 기억’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우위가 통계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의 우위는 학부생과의 비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쌍 단위로 보여주는 Tukey 사후검정에서 전문가와 학부생 집단차 유의확률은 0.013으로 높았던 것이다. 반면, 전문가와 통대생의 집단차나 통대생과 학부생의 집단차는 유의확률이 각각 0.273, 0.288으로 유의수준(<.05)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

한편, ‘단어 기억’의 유의확률도 0.389로 유의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험자와 문항 수를 확대해 보다 큰 규모의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4.2.2. 기억의 형성

기억의 형성은 형성의 과정과 형성의 결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이 중 기억형성의 과정의 경우, MSR 녹화물을 분석함으로써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¹⁰⁾ 관찰한 것이다. 단어 기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기억인출의 순서였다. 실험에서 순서를 지키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많은 피험자들이 순서에 맞추어 단어를 적었다(뒤늦게 떠오른 단어를 마지막에 적지 않고

한국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보았기 때문이었으며, 셋째, 모든 피험자에 이 변수를 통일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이는 사실 기억의 형성이 아닌 인출 과정에 가깝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피험자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기억 형성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관계로 기억 인출과정을 통해 기억 형성을 유추해 보는 방식으로 관찰, 분석을 진행하였다.

들은 순서에 맞추어 배치). 이러한 노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전문가였다. 통대생의 28.57%, 학부생의 31.03%가 마지막 단어를 첫 단어보다 앞서 적어, 들은 순서를 크게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 비율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12.5%에 그쳤다. 이 결과를 보면 순서를 지키려는 노력은 전문가가 가장 많이 한 셈이다. 실험에 사용된 단어의 수가 수행기억 용량의 한계치(7-11개)에 있음을 감안할 때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수한 음운 기억전략으로는 부족하다. 즉, 소리 리허설을(중얼거리며 외기) 하는 것 이외에도 연상 작용 등 의미전략의 도움을 받아야 전체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마지막에 들은 단어를 먼저 적은 피험자의 경우, 청각 기억이 생생한 것부터 인출한 것으로 의미전략 보다는 음운전략에 더 의존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단순한 단어 기억 실험에서 의미전략을 사용한 흔적은 세 집단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의미 연상을 통해 기억을 하다 보니 원래 단어 대신, 연상에 사용한 단어를 적은 오류가 세 집단 모두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예> 전문가: 파랗다→하늘 / 통대생: 주전자→난로 / 학부생: 어둡다→검다

‘메시지 기억’ 부분에서는 더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전문가 집단은 텍스트의 내용뿐 아니라 형태까지도 잘 인출해냈다(4.2.3. 참조). 단순 단어 기억실험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던 전문가였지만, 메시지, 즉, 맥락 내에 배치된 단어를 기억하는 데에는 오히려 다른 두 집단보다 뛰어났던 것이다. 그 증거로 처음에는 원래 단어 대신 유사어를 사용했던 전문가가 들었던 단어를 정확하게 떠올리고는 원래 단어로 고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요즘→현대 사회 / 재심→항소). 이는 전문가가 일단 의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단어의 형태를 다음 정보 인출의 자극제(네트워크의 노드)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는 학생에 비해 언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지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기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전문가는 빠르게 문장을 구성한 후, 이를 거의 수정하지 않은 반면, 학부생 집단은 문장 구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수정하였으며, 그럼에도 여러 번 비문을 산출했다(‘많은 음식소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성추행을 했다’) 또 전문가가 전문

용어나 개념에 대해 더 많은 지식(장기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형태 기억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의 언어인출 속도가 (특히 학부생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빨랐다(4.2.3. 참조). 문장 내 단어 간격도 그렇고, 문장 간 간격도 전문가 집단에서 훨씬 좁았던 것이다. 이는 기억의 점화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 전문가는 내용에서 먼저 틀(frame)을 잡고, 그 틀 내에서 세부사항은 앞선 정보를 자극 삼아 그 다음 정보를 인출한다. 이 틀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스크립트(script)일 수도 있다. 전문가가 틀을 형성했다는 증거로 텍스트 2에서 국적(독일, 영국), 사건장소(터키)와 같이 혼동할 수 있는 정보가 전문가 집단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인출된 점, 독일 검찰처럼 누락되기 쉬운 행위자(agent)가 전문가 집단에서 누락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표 4〉 텍스트 2에서의 틀과 스크립트

틀	가해자: 마르코(17세/독일)	피해자: 샬롯(13세/영국)
	가해자측: 독일 검찰, 변호사	피해자 측: 샬롯 변호사
	장소: 터키	결정자: 터키 법정
	결정: 2년 집행유예	결정 이유: 3가지
스크립트	성추행→기소→구금→재판→판결→항소	

또 앞선 정보의 내용을 자극으로 사용한 대신, 정보를 들으면서 입력한 순서를 힌트 삼아 기억을 불러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앞선 정보 내용이 다음 정보 내용을 연상시켜 다음 정보가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앞선 정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시간 기억(순서 기억)에 의해 다음 정보가 인출되었을 수도 있단 의미이다. 이는 마치 영화촬영에서 필름의 릴(reel)이 순서에 맞추어 풀리는 것에 비유해볼 수 있겠다(이는 물리적으로 뉴런의 전기신호가 다음 뉴런에 전달되어 뉴런이 차례대로 활성화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타당한 비유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전문가 집단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쉽게 누락할 수 있는 정보까지 자세히 인출한 예를 있다(텍스트 1에서 환경오염, 자원 낭비 관련 정보 / 음식물 쓰레기 양에 대한 정보). 학생 집단은 반복 정보를 자주 누락한 반면, 전문가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반복된 정보까지 자리에 맞추어 잘 인출해내었다(이것이 4.2.1.에서 전문가의 기억양이 많았던 중요한 이유)

다). 이는 전문가가 단순히 텍스트를 내용위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명제 별로 기억하면서 앞선 명제의 내용이든 혹은 시간적 힌트를 자극 삼아 정교하게 기억을 인출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기억형성의 결과는 메시지 기억 중에서도 핵심어의 기억율만을 살펴본 것이다. 통역사의 경우, 기억을 형성할 때 두서없이 무조건 많이 외우려고 하기보다, 텍스트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구조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확보를 위해 핵심어 선정에도 전문가 4인을 동원하였다. 통역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4인으로 하여금 텍스트에서 내용 파악에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나 구, 절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4인 중 최소 2인 이상이 핵심어로 표시한 단어/구/절을 텍스트의 핵심어로 선정하고(텍스트 1: 9개, 텍스트 2: 12개 - 별첨 텍스트에서 밑줄 친 부분) 피험자들이 이 단어/구/절을 얼마나 잘 기억하였나를 살펴보았다.

〈표 5〉 기억의 형성 (결과)

	집단	평균 (%)	표준편차
메시지 (핵심)	전문가	82.64	7.73
	통대생	78.37	13.90
	학부생	73.88	12.39
	평균	76.54	12.47

<표 4>에서 보듯 전문가는 전체 핵심어 중 82.64%를 기억해 비교적 뚜렷한 우위를 보여주었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통대생과 학부생이 약 5%차이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전문가와 학부생 집단은 10%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집단 내 편차를 보아도 통대생(13.9), 학부생(12.39)은 집단 개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전문가 집단은 7.73으로 고르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표 6〉 기억의 형성에서의 집단차 (ANOVA)

	평균 (표준편차)	거짓	유의확률(p)
메시지 (핵심)	76.54 (12.47)	1.80	.176

* p<.05 ** p<.01 *** p<.001

그러나 <표 5>에서 보듯 앞서 살펴본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있

는 수치는 아니었다. Tukey 사후검정에서도 각 집단 간의 차이 중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기억의 형성에서도 전문가-학부생 간의 차이(0.187)는 전문가-통대생(0.714), 통대생-학부생(0.508)의 차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유의확률 0.176이 유의수준(<0.05)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가 아닌 만큼 여기에서도 보다 큰 집단을 대상으로 재실험을 할 경우,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3. 기억의 인출

기억인출의 경우, 인출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기억 인출의 속도는 MSR 녹화물에서 단어와 텍스트 입력 시작 시점부터 끝 지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산출하였다(오타 수정 등 편집 시간은 제외하였다). 먼저 각 문항에 걸린 총 시간을 측정하고(전체 시간), 그 시간을 기억한 단어/명제의 수로 나누어, 단어/명제 하나를 기억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였다(단어/명제 당 시간). 이 중 본고에서 알고자 하는 기억인출 속도는 전체 시간 보다는 단어/명제 당 시간에서 더 잘 알아볼 수 있겠다.

〈표 7〉 기억의 인출 (속도)¹¹⁾

	집단	평균 (초)		표준편차	
		전체	단어/명제당	전체	단어/명제당
단어	전문가	21.33	3.67	7.08	1.41
	통대생	22.42	3.16	0.72	0.70
	학부생	13.88	2.99	2.82	0.52
	평균	19.21	3.27	4.65	0.35
메시지	전문가	172.36	13.44	27.60	3.96
	통대생	153.83	15.66	5.35	3.52
	학부생	130.25	20.39	29.34	5.31
	평균	152.15	16.5	21.11	3.55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음운적 기억을 테스트한 ‘단어’의 경우, 전문

11) MSR 녹화는 피험자 개인사정 이외에도 실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수와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전문가 7인, 통대생 3인, 학부생 4인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의 속도(3.67)가 다른 집단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앞서 4.2.1.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문가의 연령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높아 인지능력의 정점을 지났기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메시지’의 경우, 4.2.2에서 보았듯 전문가의 인출 속도(13.44)가 다른 두 집단보다 빨랐다. 전체 소요시간은 가장 길었으나 이는 기억한 명제의 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으로, 명제 당 소요시간은 가장 짧았던 것이다. 명제 당 소요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앞선 정보를 자극으로 다음 정보를 인출해 내는 점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메시지 기억 인출 속도는 전문가>통대생>학부생 순으로 통역습득연한, 경력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아쉽게도 속도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는 <표 7>에서 보듯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단, 메시지 인출속도에 있어서의 집단차는 유의수준에 근접하여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다시 말해 전문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메시지 기억을 인출한다는 것이다

〈표 8〉 기억의 인출(속도)에서의 집단차 (ANOVA)

	평균 (표준편차)	거짓	유의확률(p)
단어	3.37 (1.07)	.537	.599
메시지	15.90 (5.01)	3.332	.074

* p<.05 ** p<.01 *** p<.001

이 결과 역시도 통역사의 기억 전문성이 음운적 기억이 아닌 메시지 기억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9〉 기억의 인출 (정확성)

	집단	평균 (%)	표준편차
텍스트 1	전문가	65.64	28.93
	통대생	37.18	20.74
	학부생	34.57	28.06
텍스트 2	전문가	54.38	14.74
	통대생	63.57	17.37
	학부생	51.55	17.01
평균	전문가	60.01	21.84
	통대생	49.38	19.06
	학부생	45.58	22.54

기억인출의 정확성은 ‘단어’의 경우, 기억의 용량의 결과로 대체하기로 한다(4.2.1.참조). 단어 실험은 대부분의 경우, 단어를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면 옳게 기억하는 흑백식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4.2.1.에서 보았듯이 전문가가 아닌 통대생의 기억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메시지’의 경우, 기억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숫자와 고유명사를 포함한 명제의 기억율만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숫자와 고유명사를 기억하는 것은 음운적 기억의 영역이지만, 이를 포함한 명제를 기억하는 것은 메시지를 기억하는 동시에 음운적 기억 전략 역시 사용하여 기억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8>과 <표 9>를 보면 텍스트 1(연설문)에서는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성(65.64%)을 보여주었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텍스트 2(신문기사)에서는 통대생이 가장 높은 정확성(63.57%)을 기록하였다. 여기서의 집단차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099) 유의수준(<.05)에 근접한 수치였다. 통역 교육을 받은 통대생의 기억이 텍스트 유형과 주제 친밀도에 따라 전문가보다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전체적으로는 전문가의 정확성(60.01%)이 가장 높았다(원인 분석은 4.2.2. 참조). MSR 영상을 보면 전문가의 일부는 노트테이킹에서 그러하듯 읽기 전에 고유명사를 미리 적어두고, 전체 텍스트 작성에 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음운적 기억을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¹²⁾.

<표 10> 기억의 인출(정확성)에서의 집단차 (ANOVA)

	평균 (표준편차)	거짓	유의확률(p)
텍스트 1	39.61 (28.26)	4.61	.015*
텍스트 2	55.29 (17.27)	2.43	.099

* p<.05 ** p<.01 *** p<.001

4.3 실험결과 요약 및 토론

본 연구는 전문통역사의 기억이 비통역사보다 우수하며, 이 우수성은 음운적 기억이 아닌, 메시지 기억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본

12)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사용은 학부생과 통대생에게서도 관찰되었다.

실험은 모순적 결과를 가져온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기억의 측정 과정에서 두 가지를 변화시켰다. 첫째, 측정 대상을 기존의 기억 용량에서 기억의 용량, 형성, 인출(이상 기억사용의 효율성)로 확대하였다. 둘째, 듣기폭, 숫자폭 등 음운적 기억 측정에 국한되었던 기존 실험방식에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기억의 용량’의 경우, 단어에서는 가장 젊은 학부생이, 메시지에서는 통역경력이 많은 전문가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 차이는 유의미했다. ‘기억의 형성’에서는 전문가가 핵심 정보 기억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억의 인출’은 그 효율성을 속도와 정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단어의 경우 연령 순서대로 인출 속도가 빨랐던 반면(학부생>통대생>전문가), 메시지에서서는 통역습득, 경력이 많을수록 인출 속도가 빨랐다(전문가>통대생>학부생). 마지막으로 기억의 정확도는 단어 기억에서는 통대생이, 메시지 기억에서는 전문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 결과는 텍스트 1에 한해 유의미했다. 전문가에서 기억의 형성 및 인출의 속도, 정확성이 높았음은 이들의 기억 사용 효율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 전문가는 문맥없이 주어진 단어 기억에는 약했지만, 같은 단어 기억이라도 이 단어가 맥락 안에 배치될 경우, 학생보다 단어 형태를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첫째, 전문가가 뛰어난 언어능력으로 인해 기억에 더 많은 인지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둘째, 전문가가 학생보다 틀, 스크립트 형성에 뛰어났고, 또 그 틀 내에서 앞선 정보 및 시간 기억에 의존하여 기억을 점화하는 능력도 더 뛰어났던 점에 기인한다고 분석해볼 수 있겠다.

모든 실험에서 집단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두 실험의 경우, 유의미했고, 나머지 실험결과도 유의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통역사 기억의 전문성은 실제 메시지 기억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기억의 형성과정, 인출 속도와 정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다.

5. 나가며

본고에서는 통역사의 전문능력 중 기억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통역사 기억의 특수성을 새로운 실험방식을 통해 검증하려 했다. 그 결과, 본고의 가설은 상당 부분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모든 실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문항의 수를 확대하고, 더 많은 피험자를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연령, 언어배경 등)를 더욱 잘 통제된 조건 하에서 재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여건이 갖추어져 신경학 실험에 의해 통역사의 기억형성과 인출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기억능력 이외에도, 통역사의 전문능력을 밝히는 많은 이론, 실험연구가 <통역습득론>¹³⁾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이미경 (2011) 「수행기억과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정보처리의 차이」, 『번역학 연구』 12(1): 167-189.
- 정혜연 (2011) 「통역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 『통번역학 연구』 16(1): 145-175.
- 정혜연 (2014) 「통역사의 기억능력 -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통번역학 연구』 18(1): 161-179.
- 정혜연 & 고효정 (2012) 「‘메시지’ 측정 - 텍스트 및 인지언어학적 접근」, 『번역학 연구』 13(4): 185-209.
- Bajo, Maria Teresa & Padilla, Francisca & Padilla, Presentación (2000) Comprehension process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ranslation in con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127-142.
- Chincotta, Dino & Underwood, Geoffrey (1998) Non temporal determinants of

13) 통역능력을 배우는 과정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필자가 제안한 학문영역으로, 명칭은 <언어습득론(language acquisition)>에서 가지고 왔다. 통역능력 정의, 통역습득 과정 연구 등의 이론 부분과 통역교육의 응용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bilingual memory capacity: The role of long-term representations and fluency.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 117-130.
- Christoffels, Ingrid, K. & de Groot, Annette, M.B. & Kroll, Judith, F. (2006) Memory and language skills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The role of expertise and language proficienc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4: 324-345.
- Craik, Fergus A. M. & Lockhardt, Robert S. (1972)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 671-684.
- Elliot, Lise 저, 안승철 역 (2006) 『우리아이 머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What's going on in there?)』 서울: 도서출판 궁리.
- Köpke, Barbara & Signorelli, Teresa M. (2011) Methodological aspects of working memory assessment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6(2): 183-197.
- Köpke, Barbara & Nespoulous, Jean-Luc (2006) Working Memory performance in expert and novice interpreters, *Interpreting* 8(1): 1-23.
- Lambert, Sylvie (1983) Recall and recognition among conference interpreters, in transfer and translatio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RELC Anthology Series*. Singapore University Press 12: 206-220.
- Liu Minhua & Schallert, Diane L. & Carroll, Patrick, J. (2004) Working memory and expertis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6(1): 19-42.
- Miller, George A. (1956)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Psychological Review* 63: 81-97.
- Mizuno, Akira (2005) Process Model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Working Memory, *Meta* 50(2): 739-752.
- Neubauer Aljioscha C. & Spinath Frank M. & Riemann Rainer & Angleitner Alois & Borkenau Peter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 on Two measures of Speed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ir Relation to Psychometric Intelligence, *Intelligence* 28(4): 267-289.

- Noppeney, Uta. & Price, Cathy J. (2004) Retrieval of abstract semantics. *NeuroImage* 22(1): 164-170.
- Nordet, Lilian & Voegelin, Lara (1998) *Les tests d'aptitude pour l'interprétation de conférence. La mémoire.* Mémoire pour l'obtention du Diplôme de Traducteur, Université de Genève.
- Padilla, Presentación (1995) *Procesos de memoria y atención en la interpretación de lengua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dad de Granada.
- Saito, Satoru & Miyake, Akira (2004) On the nature of forgetting and the processing storage relationship in reading span performance,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0: 425-443.
- Seleskovitch, Danica 저, 정호정 역 (2002) 『국제회의 통역에의 초대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서울: 한국문화사.
- Tompson-Schill, Sahron, L. & Kan, Irene P. & Oliver, Robyn T. (2006) Functional Neuroimaging of Semantic Memory, *Handbook of Functional Neuroimaging of Cognition (2nd Ed.)*, Cambridge: The MIT Press: 149-190.

[별첨] 실험자료

단어 기억 실험

- 뛰었다, 78, 김, 5, 어둡다, 풍차, 한국금융감독위원회 (7)
- 핸드폰, 브로콜리, 선택하다, 만드시, 빨리, 쉽다, 문화, (7)
- 집, 1999, 나무, 대한무역진흥공사, 성냥, 25, 문, 자다, 7 (9)
- A4, 빨리, 불펜, 주전자, 2004, 버스, 달다, 약속, 한국방송공사, 파랗다, 참석자 (11)

메시지 기억 실험

텍스트 1 (연설문) - 18개 명제, 9개 핵심어/구절

연말연시를 맞아 / 만남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장소가 / 바로 음식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집보다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이 된 / 음식점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무려 1만500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소형·대형 음식점이 전체 발생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 식량자원 낭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주문식단체'라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고객들의 주문을 조정함으로써 / 음식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것이었지요. / 하지만 어렵게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

텍스트 2 (신문기사) - 18개 명제, 12개 핵심어/구절

독일 소년 마르코는 17세였던 2007년 여름, 터키에서 당시 13세였던 영국 소녀 살롯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 후 마르코는 터키 구치소에서 200여일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 그의 혐의는 아동성추행으로 / 터키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접촉은 최고 8년까지의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 터키 법정은 2년간의 재판 끝에 / 지난 달 마르코에게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 그가 미성년이며 / 전과가 없고, / 터키법정에 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을 / 정상 참작한 것이다. / 마르코 측의 변호사는 성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 독일 검찰 자체 조사를 들어 /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편, 살롯 측의 변호사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bstract]

Measuring Interpreters' Memory
— An Empirical Research on Interpreting Competence —

Chung, Hye-y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al features of the memory system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on the base of psychological and neurological findings and attempts to measure those features experimentally. Previous studies on the memory of interpreters have been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interpreters have greater memory capacity than non-interpreters. The results of those studies did not, however, always confirm that presumption (Padilla 1995, Chincotta & Underwood 1998, Liu et.al. 2004, Köpke et.al. 2006, Nordet & Voegtlin 1998). In this paper, we modified the premise of the previous studies and designed our experiment in the following way. (1) Not only Capacity, but also construction and retrieval of memory are measured. Both process and product of memory usage are thereby important to define the interpreters' expertise in memory more accurately (speed and accuracy of memory construction and retrieval, i.e. effectiveness of memory usage). (2) The semantic memory ('sense' memory) as well as phonological memory of interpreters were tes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excellence of the interpreters' memory lies in the constructing sense, not memorizing of lists of words. In this experiment 51 subjects (29 undergraduate students, 14 students of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8 professional interpreters) were tested in their capacity, construction and retrieval of memory. In memory capacity, professionals scored lower than the control groups in phonological memory test, but higher in the semantic test. Professionals also yielded better results in the accuracy of semantic memory retrieval than the control groups. Both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Key Words: interpreting competence, expertise, sense, memory

정혜연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부교수

johanna2000@hanmail.net

관심분야: 인지심리학, 통번역학

논문투고일: 2014년 10월 8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4일